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7)

원용국사 결응 (圓融國師 法號: 964~1053) 上

화엄의 종취 지킨 부석사의 종장

故 김지건 선생은 일찍이 <균여전 재고(均如傳 再考)>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 왕실과 불교 간의 관계를 평한 적이 있다.

“광종이 중국의 선종오가(禪宗五家) 중 맨 나중에 성립한 법안종에 주목해 지종 등 30여 인을 파견해 이를 수입, 고려에 부식(扶植)시키고자 한 것은 바로 신라 말의 구산선문을 재편해 환골탈태시키고자 한 또 하나의 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종의 이와 같은 성급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구산문의 개산조는 거의가 입당 전에 북악(北岳, 신라 말의 의상계 화엄을 말한다)의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입당(入唐)하여 새로운 선종을 전래했지만 위양이든 조동이든 이를 새로운 선종으로 독립시킨 실례가 없다. 아무리 새로운 선종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그것을 선사(先師)의 산문에 귀속시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전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산의 완강한 전통 앞에 당연히 수입의 법안종은, 그리고 그 수입에 앞장섰던 광종의 왕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호에 법안종의 원공국사 지종이 끝내 도움을 떠나지 못했던 사정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광종의 후원을 받아 고려 왕실의 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불교를 이식하고자 했던 원공국사 지종은 끝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입적을 코앞에 두고 낙향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광종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희생당한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저 유명한 균여이다. 균여의 입장이 광종의 불교정책과 엇갈리면서, 균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지종, 광종의 급진 개혁 희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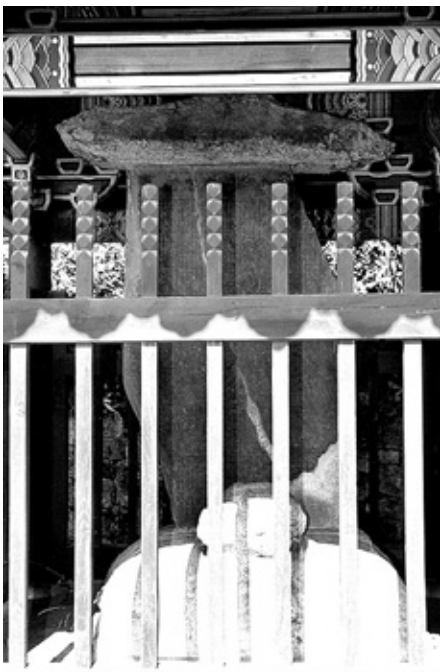
결응 스님, 정치적 안정기인

의상계 화엄종 주도적으로 이끌어

다. 혁련정이 저술한 <균여전>에는 광종과 균여의 엇갈림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노하여서 스님(師, 균여)을 불러들여 해하고자 하였다가, 스님이 쫓겨나 이르러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자, 그 정상을 보고 잘못이 없다 여기고 명령을 반복하여 의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축하여서 내보냈다.”

명령을 반복하여 내보냈지만, 이제 막 50대에 불과했던 균여 스님이 의관 두 사



부석사원용국사비(浮石寺圓融國師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부석사 현관에 세워진 비각 안에 놓여 있는 비로, 원용국사 결응을 기리고 있다.

람의 부축을 받고 나서야 했을 정도였으니, 실은 고문을 받고서 감당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균여를 대표자로 내세워 고려의 중앙부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의상계 화엄은 중앙에서 일시 퇴출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균여의 공백을 비의상계 화엄종 승려로 여겨지는 탄문이 국사로서 매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탄문의 뒤를 막 귀국한 원공국사 지종이 채우게 된다. 그러나 원공국사는 고려왕실을 지방할 새 불교를 바라는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개경 도읍 40년을 머물고도, 신라적 불교와 고려 왕실을 간극을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고려는 성종의 체제를 맞이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기는 하지만, 왕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귀족 세력에 의해 견제를 당하면서 일종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라 불교를 대변하던 법상종과 의상계 화엄종 세력이 다시 부상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용국사 결응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고려의 의상계 화엄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결응 스님은 964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선조는 명주(溟州)의 호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자는 해일(海日)이고, 속성은 김씨이다. 집안이 한나라 때의 만석군 부자였던 석분(石奮)에 비교될 정도로 부유했던 호족 가문의 출신이었다.

경남도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4 시종(時宗)의 조사 잇펜 상인(一遍上人) ㉔

정토불교를 대표하는 결정판

중생구제를 위한 잇펜(一遍: 1239~1289)의 평생의 삶은 오늘날 일본 정토불교계를 대표하는 지행(知行)의 결정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전국을 행각하던 중 만난 모든 중생을 아미타불의 대자대비의 품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다. 평생을 버림으로 일관했기에 그를 스테이지리[捨臺]라고도 한다.

잇펜은 에히메현의 무사 호족 집안 출신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조큐(承久)의 난(1221)을 계기로 무사정권인 막부가 왕위 결정을 비롯해 왕실 전체의 권력마저 장악하던 시기였다.

잇펜의 가문은 전쟁에서 패한 왕실 쪽에 섰던 바람에 몰락해 권세를 잃어 버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그는 정토종 사원에 들어가 수학하고, 10살 무렵에 출가해 ‘치신(智眞)’이라는 별명을 받았다.

그는 수행 도중 25세에 아버지의 죽

평생을 버림으로 일관

이하백도 고려 정토신앙 드러내

가족을 데리고 염불포교 나서

음으로 가계를 잇기 위해 한숨했다. 그러나 남겨진 재산을 놓고 일족이 싸우는 모습을 다시 출가를 결심했다.

잇펜은 32세였던 1271년, 오카야마 현에 있는 젠코지(善光寺)에 들어가 아미타불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는 ‘이하백도(二河白道)’의 그림을 그렸다. ‘이하백도’란 중국 정토교의 조사인 선도(善導)의 <관무량수경소>에 기술된 것으로 왕생정도를 원하는 자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에 이르는 노정을 설명한 것이다.

남쪽에는 불의 강, 북쪽에는 물의 강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서쪽으로 향한 백도가 있다. 이 길을 가는 도중 양옆에 서는 수화가 덮치거나 뒤에서 도적들과 괴수들이 쫓아온다. 진퇴양난 중 동쪽 기슭에서는 죽음의 재앙은 없으니 빨리 건너라는 고향과 서쪽 기슭으로부터는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와 믿음과 힘을 얻어 길을 무사히 건너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동쪽은 사바세계, 서쪽은 정토



<잇펜상인상, 에히메현 호코지(寶嚴寺) 소장>

이러한 장면의 설정을 통해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통해 이 백도를 건너 안락세계에 이르는 내용이다. 잇펜은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정토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하백도를 본존으로 하고 3년간 염불정진해 체득한 바를 ‘십일불이승(十一不二頌: 十劫正覺衆生界 一念應生彌陀國 十一不二証無生 國界平等大會坐)’으로 나타냈다. 그 내용을 풀면 다음과 같다.

법장보살은 오랜 과거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서원을 세워 아미타불이 됐으며 이로 인해 모든 중생은 이미 제도됐다. 따라서 미혹에 쫓은 우리 중생들도 지금 일념으로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의 나라에 왕생할 수 있다.

미타불의 정각과 중생의 일념은 둘이 아니므로 무생(無生)의 세계를 증득해 아미타불과 일체가 될 수 있다. 아미타불과 인간은 평등해 일념의 염불로써 극락정토에 함께 안주할 수 있다.

잇펜은 이러한 깨달음을 계기로 처와 딸, 재산을 데리고 염불포교의 유행(遊行)에 나섰으며, 특히 나무아미타불이 쓰인 패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다가 어떤 승려로 부터 자신이 신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패를 받지 않겠다 는 말을 듣고 번뇌가 일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㉔

경봉 스님 일지와 편지에는 대중과의 법거량 담겨있어

경봉 스님이 남긴 <삼소굴일지>와 <삼소굴소식>을 통해 당시 사회적 환경과 그 시대 선사(禪師)들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이번호부터는 ‘일지’와 ‘편지’를 통해 선사들의 법거량과 제자들을 지도하는 내용, 불교계의 중요한 사건, 수행일과 등을 살펴본다.

스님의 일기는 1910년(19세)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봉 스님은 그렇게 시작한 일기를 1976년(86세)까지 무려 67년간이나 썼으니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그 성품을 알 수 있다.

이 일지의 서문을 쓴 법정(法頂) 스님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1920~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누구 누구라고 그 이름을 들을 것도 없이 제방(諸方)의 눈푸른 낚사(網子)와 선지식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일지를 통해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승가(僧伽)의 가풍

이며 절 살림살이의 양상도 넘어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은 단순히 사적(私的)인 기록의 영역을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요즘의 불교계와 비교해볼 때 진짜와 가짜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눈으로 가려볼 수 있다.”

물론 <삼소굴일지>는 경봉 스님의 일기를 모두 모은 책은 아니다. 이 책은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인 명정 스님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경봉 스님이 삼소굴에서 쓴 일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삼소굴소식>은 ‘한국 근세 고승서간문집’으로 경허(鏡虛, 1849~1912)스님으로부터 경봉 스님에 이르기까지 177명의 등장인물과 편지 246통이 들어 있다. 명정 스님에 의해 정리·번역된 책은 가마니로 두 가마니 분량이 나왔다 한다. <삼소굴소식>에는 경봉 스님이 삼소굴에

서 주고받은 편지가 중심이지만 경봉 스님과 주고 받지 않은 귀중한 서간문도 포함되어 있다. 대개는 선사들 간의 교류된 편지이지만 거사들과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간혹 선원 등 단체와 주고받은 내용도 있다.

경봉 스님이 보낸 편지를 보면 스님이 38명, 선원이 2곳 재가가 5명으로 모두 65통이다. 경봉 스님이 받은 편지는 스님이 69명, 선원이 4곳, 재가 12명으로 84명 157통에 이른다. 스님은 불교계의 중요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일지에 기록을 남겼다. 1945년 8월 16일 일지를 보면,

“14일 일본천황이 조서(詔書)로써 사국선언(四國宣言)을 수락하고 만세(萬世)에 태평을 연다는 방송이 있었고, 8월 15일 전쟁은 휴전이 되었다 한다”고 기록했다. 또 1953년 1월 20일에는 “미국 대통령 아이

젠하위 취임하던 날이다”라고 적었고,

1961년 5월 16일자 일지에는 “오전 4시를 전후해서 장도영(張都映) 중장이 지휘하는 혁명군사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중앙청 방송국 경찰을 완전 장악하고 6개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한다”라고 기록했다.

이 같이 스님의 일기는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경봉 스님의 일지에 실린 인물은 424명(중복 포함 565명)에 이른다. 여기에 선사, 정치인, 경제인, 공사인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어 다채로운 자료가 된다.



정토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 종합반 : 10인 이내
-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 기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 장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울 철학박사 김철회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범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인으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육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육사육임사주강점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육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 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해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해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공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공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김일김시선택비법 2011 제3판본정권본 1권 5만원
- 육임년전사비법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 8종

◆ 육임 및 각 오행수법 CD프로그램 ◆

- 육사육임전역집 2011완결최종판(종합) 350만원
- 육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육사육임비법 혁신판 수정보원본 월장법 전12권 수록 (대계전사) 7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사육임상생활강점법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사육임산일일시선택비법 2011정권 제3판본 1권 수록 30만원
- 육사육임1년신수비법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정동부적보 2011정권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이상 13종

◆ 기타 ◆

- 육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구려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원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사육임전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중장차) 정가350만원
- 육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주) 농협 301-0071-8027-01 /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신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 평생운, 해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계약절기 수술일자, 묘이자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개인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인법
 ○ 개인기도법 - 개인의 비밀, 개인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5주)
- ◆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 ◆ 천부경 운세강점법(10주 완성)
- ◆ 천부경 숫자풀이법(5주 완성)
- ◆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포함)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사까지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전 교육원 (010)-6476-1021
 ☐ 대구 교육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